

## 서울시, '지구 반대편' 페루 리마에 스마트시티 정책 전수

등록 2021.11.25 06:00:00

### 기사내용 요약

서울시-리마시, '스마트시티 협력 업무협약' 체결

“지구 반대편에 서울의 스마트함을 심다”

# 서울-리마 스마트시티 협력 MOU

MOU para Cooperación de la Ciudad Inteligente  
entre el Lima y Seúl

치안·대중교통 인프라 개선, 디지털 분야 육성 등  
서울시의 스마트시티 정책이 페루의 수도 리마로 나아갑니다.

**2021. 11. 25.(목), 8:30 ~ 9:00**

**▶ YouTube 온라인 중계**

시간	프로그램	발표자
8:30 ~ 8:33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8:33 ~ 8:40	서울, 리마 홍보 동영상 상영	사회자
8:40 ~ 8:45	서울시장 환영사	서울시장
8:45 ~ 8:50	리마시장 답사	리마시장
8:50 ~ 8:55	축사	주베를린 한국대사 주안 페루대사
8:55 ~ 9:00	MOU 체결 및 사진촬영	

▶ YouTube 온라인 중계 서울-리마 스마트시티 협력 MOU

[서울=뉴스시스]서울시가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페루 수도 리마에 서울형 스마트시티 정책을 전수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서울시 스마트시티 협력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 2021.11.25. (사진 = 서울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스시스] 이종희 기자 = 서울시가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페루 수도 리마에 서울형 스마트시티 정책을 전수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호르헤 무뇨즈 웰즈(Jorge Muñoz Wells) 페루 리마 시장과 25일 오전 8시30분 온

라인으로 '서울시 스마트시티 협력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

중남미 33개국 중 경제규모 6위인 페루의 수도인 리마시는 최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치안, 교통문제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리마시는 서울의 도시발전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서울형 스마트시티 모델 도입을 희망했다. 이에 현지 한국 공관의 지원하에 리마시와 긴밀히 협력을 논의해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는 그동안 축적해온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 정책 수립 경험 및 노하우를 중남미 교두보인 페루 리마시에 전수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서울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기반으로 리마시에 ▲시민안전 ▲대중교통 인프라 ▲디지털 등 3개 분야 발전을 위한 중장기 개발 전략 수립과 역량강화 연수를 지원한다.

이번 행사에는 조영준 주 페루 한국대사, 다울 마투테 메히아(Daul Matute Mejia) 주한 페루대사 및 시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양 도시 간 스마트시티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호르헤 무뇨즈 웰즈 리마시장은 리마시 시청사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접속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스마트시티 정책 및 운영 노하우를 리마시와 적극 공유할 것"이라며 "서울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기반으로 리마시가 더욱 스마트한 도시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